

“전북 축제를 쇼핑하라”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박람회 성공개최 기원”
전북도, 축제 박람회 참여
지역 관광 홍보 ‘구슬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이하 박람회)에 참가해 전북 관광 홍보활동에 나섰다

전북도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 2021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에 참가해 전북도 축제 정보를 알리고 전북 관광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300개 부스에서 지역축제 성공사례와 다양한 최신 축제 콘텐츠 전시, 축제프로그램 등의 정보공유가 이뤄졌다.

지난 9일 개막식에는 송하진 대한민국의지사협의회장과 도종환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한

민국 지역축제와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며 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한편, 도는 이번 박람회에서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아테마스터즈대회에 대한 집중 홍보와 14개 시·군과 함께 지역축제 체험과 스티커 퀴즈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

최했다. 도는 춘향제, 일일N치즈축제, 한우랑 사파랑 축제 등 전북도 대표축제 포스터와 전북투어패스 이미지로 부스를 구성했다.

부스 안에는 여름철 가 볼 만한 여행지 소개와 하반기 전북도 지역축제를 알리기 위한 퀴즈 이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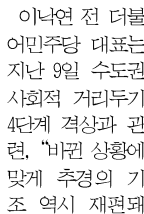
트를 개최해 지역특산품과 기념품 증정을 통해 방문객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생태관광지, 차박 캠핑 체험관광 등 테마별 관광지 홍보와 전북투어패스권 증정으로 휴가철 전북방문을 적극 유도했다.

/유호상기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추경 기조 상황 맞게 재편돼야”

민주 이낙연 전 대표 “소상공·일용직·특고 노동자 등 피해 지원 확대, 맞벌이 부부 긴급돌봄지원 추가 편성”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관련,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의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소비진작 및 경기활성화도 고려하며 편성됐다. 재자연금이 대폭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다. 코로나19의 싸움이 더 거세고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경제방역의 속도가 국회에 떨어졌다. 추경예산안 처리가 더 주목받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의 새로운 틀을 고민할 때”라며 “피해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며 “소상

공인, 임시일용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피해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긴급돌봄지원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학교에 못 가는 기간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아이들의 디지털 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 학교가 보유한 태블릿PC를 우선 대여하고, 무선인터넷 설치지원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안전망 구축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 국회와 정치권이 재자연금 지급 대상비를 두고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경 처리를 늦추자는 주장도 비판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단순히 경제통계로 이해해선 안 된다. 그것은 통계보다 훨씬 심각한 국민의 삶의 현장, 현실의 고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장맛비 피해’ 익산에 가전제품 무상수리

행안부, 매일시장 주차장 인근서 가전 3개사 합동무상수리팀 운영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전북 익산시와 전남 진도군 주민들이 가전제품을 무상 수리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익산시 매일시장 주차장과 진도군 조곡시장 인근에서 가전 3개사 합동무상수리팀을 설치·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대우와 자연재난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따른 것으로 이번이 첫 시행 사례다. 합동무상수리팀은 가전3사 인력 40여 명으로 꾸려지며, 수리에 필요한 장비 30여대도 동원된다.

오는 10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단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하며, 일요일엔 운영하지 않는다. 가전제품 점검·수리는 기본적으로 무상이며, 일부 핵심 부품은 유상(부품료 50~100%)으로 진행된다. 소형 가전은 피해 주민이 직접 합동무상수리팀을 찾아가 점검·수리하면 되며, 대형 가전의 경우 직원이 가정 방문한다. 행안부는 합동무상수리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안내 데스크 인력을 비롯해 시설·물품·장소 등을 지원한다. 피해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홍보·안내도 한다. 현재까지 집계된 두 지역의 주택·상가 침수 피해 건수는 515동에 이른다. 익산시는 상가 200동이 진도군은 주택 265동과 상가 50동이 각각 물에 잠겼다. 두 지역이 아닌 곳에서 가전제품 수리 피해를 입은 경우 가전3사 지역별 개별 서비스센터를 통해 순회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김희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처음 가동되는 가전제품 합동무상수리팀을 통해 피해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북도의회, 유튜브 채널 ‘어썬전북’ 개설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가 도민들과 소통 통로를 확대하기 위해 동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유튜브 채널 ‘어썬전북’을 개설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어썬전북’은 ‘내담하고 멋진 전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송지용 의장은 “도민과의 비대면 소통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의회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며 “채널이름 ‘어썬전북’처럼 도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도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채널이 개설된 어썬전북에는 제382회 정례회 동인의 의정활동 영상이 올라가 있다. 도의원이 도정에 대해 도지사 등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도정질문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현지의정 영상, 의원 자유 5분 발언까지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영상을 접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민주 윤준병 의원, 건보 1일 명예지사장 활동 주민소통 강화

전북 정읍·고창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1일 명예지사장’으로 활동하며, 민생 현장에서 현장중심형·지역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 1일 명예지사장으로 위촉된 윤 의원은 건강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사업 현황과 정읍지사의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민원실을 찾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 상담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 활동을 나섰다.

윤준병 의원은 “1일 명예지사장으로서 건강보험에 대한 현안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를 찾아주시는 지역주민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히며 “특히,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 뵙고 민원과 불편사항들을 함께 고민하고 처리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경험을 토대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의료정책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지역구인 정읍과 고창 37개 읍면동을 찾아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듣는 ‘토방청담(土訪淸談)’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지역주민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정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농어촌·산간벽지 버스노선 운행 보장

이용호 의원, 최소교통권 보장 법안 대표발의

앞으로 농어촌과 산간벽지 등 수익성이 낮은 버스노선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운행만큼은 보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수익성이 낮은 버스노선에 대해 정부 등이 최소한 1회 왕복 운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산간벽지 최소교통권 보장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과 산간 지역 등의 경우 도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로하신 주민들이 많고, 벽지노선과 수익성이 낮은 버스노선에 대한 단속은 행이나 폐선이 발생할 경우,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이동권과 교통권은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이러한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된다. 어쩔 수 없이 노선폐지나 감차를 해야 한다면 해당 노선의 운송사업자에게 적절할 수준의 손실보상을 하고, 운송사업자도 해당 노선에 최소한 1회 1회 왕복 운행을 함으로써 농어촌과 산간벽지 주민들의 이동권과 교통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국회 예결위원 17명 중 13명 ‘호남 동행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국민의힘 17명의 위원단에 호남동행 국회의원 13명이 포함돼 내년도 호남지역 국가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을 포함해 박진·김승수 전북 전주시 동행의원, 이종배 전북 완주군 동행의원, 최형두 전북 장수군 동행의원, 김성교 전북 임실군 동행의원, 권성동·윤영석 광주시 동행의원, 권병호 전남 고흥군 동행의원, 이만희 전남 화순군

동행의원, 정희용 전남 함평군 동행의원, 김성원 전남 완도군 동행의원, 윤두현 전남 신안군 동행의원인 국민의힘 예결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에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13명의 호남동행 국회의원들은 국가예산을 직접적으로 심사하는 위원들이지만, 앞으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호남의 예산을 더욱 꼼꼼하게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호상 기자

김영병 의심되면 '139'로